

친애하는 세계들

속칭 '이발소 그림'같은 싸구려 유화를 구매해 '작업'하는 아미캄 토렌과 같이, 회화는 그 자신을 주제로 삼을 정도로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른다.

EDITOR 장남미 PHOTOGRAPHER 조보근



Amikam Toren, <Armchair Painting – Untitled (move your money when you like)>, 2004 © Amikam Toren, Courtest of Anthony Reynolds Gallery, London

회화가 죽었다는 말은, 정말 과장된 것일까? 탁월한 작명 센스에 버금가는 큐레이팅이란 이런 것이라고 놀라게 한 <세계의 네 모서리(Four Corners of World)>를 보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후회할 뻔했다. 걱정마라. 이 전시는 청담동 하이테크렉션에서 12월 14일까지 계속된다. 먼저, 이 그룹전을 무척 흥미롭게 만든 작가 아미캄 토렌을 얘기해야겠다.

이스라엘에서 온 아미캄은 소변기로 예술을 한 마르셀 뒤샹 빠치는 '레디-메이드 회화'를 한다. 중고 상점이나 고물상에서 구매한 싸구려 유화 작품 위에 스텐실로 어디에선가 가져온 문장이나 문구를 찍고 오려낸 작업이다. 작품을 걸면 뒷면에 보이는 흰 벽을 통해 음각된 글자들이 읽히는 방식으로 상호 교류하는 회화를 위해 아미캄은 쇼펜하우어의 문장이나 너바나의 노래 가사 일부 같은 문구를 쓴다. 예를 들어 '알다시피 세상의 종말(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말이 있으면 행동은 필요 없다(Who needs actions when you've got world)', '그리고 나는 괜찮아(And I feel fine)' 등이다. 아미캄은 이 회화를 갖고 만든 회화를, 평정한 마음에 도달하고자 했던 앙리 마티스가 말한 개념에서 차용한 '안락의자 회화(Armchair Painting)'라고 명한다. 이 레디-메이드 회화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은 그룹전에서 어떤 '텍스트'로 쓰이는 걸 알아채는 순간들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1999년부터 영국 버밍햄의 이론 갤

러리에서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전시의 기획자인 조나단 왓킨스의 탁월함에 놀라게 된다. 이런 순간은, 미안하지만 말로는 다 못한다. 전시는 3차원적인 경험이므로 그 곳에 직접 가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2차원 평면인 회화에겐 선고된 '죽음'은, 세상과 소통에 실패한 미술관 같은 '공간의 죽음'을 함의했다고도 생각해본다.

다시 "인류의 삶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회화, 그 네 개의 모서리 안에서 이차원적이고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조우이다"고 한 조나단 왓킨스로 돌아가자. 그는 아미캄을 관람객을 위한 '지도'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업하는 각기 다른 국적의 회화 작가 일곱 명의 작품들이 대비와 대구를 이루는 배치와 동선에 따라 '새로이 읽는 즐거움'을 열어준다. 예를 들어 영국 작가 허빈 앤더슨이 테니스장이 있는 공원 풍경을 그린 <킨추리 클럽>과 마주 보는 벽에 아미캄의 <안락의자 회화 - 공놀이 금지(No ball games)>를 건다. 또한 명민한 디렉터는 194개의 드로잉으로 이번 그룹전에 참여한 코트디부아르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부아브레를 빌어 "당신이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나 다른 곳에서 왔든, 나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이 동일한 생명체의 모든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략) 우리는 모두 땅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모든 인종과 피부색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전한다. M